

AUTHOR 김재성 (Jae Sung Kim)

TITLE 칼빈과 청교도의 주일 성수

(Calvin and the Puritan on the Sabbath)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4 no.1 (May, 1996):174-191

## 칼빈과 청교도의 주일 성수

김재성

〈조직신학, 전임강사〉

### 〈목 차〉

- |                     |                             |
|---------------------|-----------------------------|
| 1. 칼빈의 신학에서 본 주일 성수 | 2. 청교도의 주일 성수 이해            |
| 1) 안식일의 세 가지 요소     | 1)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 2)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 2) 청교도의 주일 활동               |
| 3)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인가?   |                             |
| 4) 안식일의 윤리적 적용      | 결론                          |

이 글의 목적은 개혁주의 신학의 광맥인 요한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이해를 고찰함으로써 십계명 중 제4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구약의 계명이 지닌 중요한 의미가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풀이되어야 하는가의 큰 시야에서 본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기독교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이다. 일제하 박해 속에서 형성된 주일 성수 신앙은 비록 소

수의 노력이었지만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 근래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문 발송,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철저히 헌신하려는 의식이 흥미해지기 쉬운 이 시대이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서 주일에 사사로운 일을 삼가려는 노력은 매우 귀한 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속인들과 무엇인가 다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주일 성수는 칼빈주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영국과 미국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상징이었다. 서구 유럽에 전개된 16세기 종교개혁의 첫 백여 년 동안에 주일 성수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특히 대륙보다는 영국에서 매우 엄격한 주일 성수(the stric observance of the Sabbath)가 시행되었으니, 이는 청교도와 영국 성공회의 구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sup>1)</sup>

엄격한 주일 성수 신앙과 실천은 신대륙으로 건너와서도 한동안 지켜졌다. 미국 초기 청교도들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나다니엘 호오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윤리적인 엄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 칼빈의 시대에도 이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하던 노력은 동일했다.

이제 우리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주일 성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2)</sup> 종교개혁의 초기 신학자인 칼빈과 영국 청교도들의 개혁의 전통 속에서 찾아 보고

1) Patrick Collison, *The Elizabethan Puritan Movement* (Oxford: Clarendon, 1990), p. 436. idem, "The Beginning of English Sabbatarianism," *Studies in Church History* (London: Nelson, 1964): 207-8

2) 주일성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미국 칼빈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John Stek, "The Fourth Commandment: A New Look," *Reformed Journal* 22 (1982): 26-29. Paul Jewett, *The Lord's Day* (Grand Rapids: Eerdmans, 1971)을 참고할 것.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주일 성수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칼빈의 신학에서 본 주일 성수

칼빈의 신학 가운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기독교강요』 제2권 제7장이다. 여기서 칼빈은 십계명을 순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독교강요의 초판과 그 이후의 증보판과 비교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급한 칼빈의 다른 글들에서도 역시 별다른 원리상의 첨가를 발견할 수 없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이것이니, 우리 자신의 일들과 성향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명상해야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 안에서만 이 명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빈은 안식일 준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일은 보통날과는 달리, “우리 자신의 일들과 성향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 날”이라고 가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핵심적인 신학과 연관되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의 중심의 입장이 반영된 해석이다.

주일에 대한 또 다른 강조로는 이 날은 곧, 하나님의 은총의

3) 『기독교강요』, II.viii.28.

날이라는 표현이다. 제4 계명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이 은총의 날이라는 주제하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에 의한 것이다. 안식일은 이런 은총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들로부터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칼빈에게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완전히 버리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에 칼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4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계명의 의식적인 요소들이 이 넷째 계명에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계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이전에 걸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히 지켜오면서 고수해 온 의식적 예고(ceremonial foreshadowed)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준수하는 차원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둘째는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에게 휴식을 주도록 명령된 날이라는 요소이다.

### 1) 안식일의 세 가지 요소

칼빈은 안식일의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이 날은 영적인 휴식의 예표적인 그림자로서, 하늘의 율법을 주신 분께서 앞으로 누리게 하실 참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 날의 참된 의미는 “영적인 휴식”(spiritual rest)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 칼빈의 주일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칼빈은 이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 요청이 주어진 구약 성구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요

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휴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엄밀한 주일 성수의 강조가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모여서 율법을 들으며, 제사 의식들을 준수하는 날로 주셨다는 것이며, 적어도 경건하게 이 날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특별히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 날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도록 지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꾼들이 땀으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첫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날에 대한 외적 요소는 사라졌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약시대의 한 날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의 “내적인 실재” (the inward reality)는 여전히 신약 시대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내적 실재”란 은혜의 실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전적으로 휴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양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송두리째 내어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궁리들 속에서 나온 모든 행동들로부터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요, 사도께서도 역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위에서 칼빈이 언급한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의 영원한 의무라는 점을 부각시키되, 단지 칠일 중에서 하루에 대한 ‘금지’로서의 부정적인 의미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 이

4) 『기독교강요』 II. viii. 29. 히브리서 4:9, 13:21.

날의 휴식은 억지로 하루를 쉬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누리는 휴식이요, 영원한 ‘멈춤’ 혹은 ‘정지’인데, 이를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제칠일에 안식일 준수를 하는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그의 신명기에 대한 35 번째 설교에서, 안식일은 영적인 휴식, 구원적인 휴식의 본질적인 표지(標識)이므로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날은 성화된 사람들을 위한 표시로서 주신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표시이다. 아무나 이 날을 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주님의 신실한 교회만이 이 날을 쉬게 하심이자, 세상의 모든 휴식으로부터 구별하시는 표지이다.<sup>5)</sup>

칼빈은 이 날의 ‘예표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속적 안식의 상징이요, 예표로서, 구현으로서 매주마다 특정한 한 날을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로 상징된 이 구속적인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따라서, 외적인 형식의 안식일 준수, 이것이 구속적인 상징의 의미를 지녔던 과거의 개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sup>6)</sup>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주님만이 이 날의 참된 완성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칠일 중에서 한 날을 준수함으로써

5)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tr. Arthur Golding (1583;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p. 207: “This is not common to all mortal men. For God granteth no such grace and privilege to the paynims and infidels, as to make them holy: He speaks but only to the people whom he adopted and chose to be his heritage. But now seeing that the Sabbath day is a sign of God’s separating of his faithful Church from all that rest of the world.”

6) 『기독교강요』 II. viii. 31, “the ceremonial part of this commandment was abolished... He [Christ] is the true fulfillment of the Sabbath.”

씨 상징되었던 것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타났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활과 구속적인 휴식이다. 따라서 칼빈은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안식일의 미신적인 준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 날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즉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생각에 대해서 통박하는 말이다. 우리는 한 거룩한 날 안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

## 2)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의 둘째 요소는 여전히 오늘에도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요소는 이 날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시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제4 계명은 공동의 예배가 가능토록 만들어준다. 칼빈은 안식일만 반드시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규칙적인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루를 정해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들도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질서대로 하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완전한 날이 오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하러 모이게 될 터이다. 그래서 어떤 날에 대한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아직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것이 제 4 계명이다.

물론 일주일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자칫하면 하루만 거룩하게 보내면 다 된다는 식의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다. 하루만 거룩하게 살면 나머지는 모두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염려가 있다.

## 3)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주일을 특정한 날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날보다도 예배드리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서 칼빈이 살던 제네바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던 식대로 토요일 하루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던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참된 “안식의 목적과 성취”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 날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제네바에서는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의 규범을 정하여 두고 미신적으로 이 날을 막연히 보내지 않고, 거룩한 성경공부와 명상을 하도록 하였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이를 발견한다고 칼빈은 덧붙였다.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계속되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 규칙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신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이 날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날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10-11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고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도는 의무적인 조항으로서 한 날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칼빈은 이 구절을 설교로 풀이하면서, 복음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룩된 구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유대인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모임을 위해 어떤 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 날들을 예식의 이유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의 시대에는 안식일에 자기의 사업을 하거나, 나무로 만든 메를 들어 치는 것이나,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만큼 무서운 범죄로 여겼다. 안식일에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게으른 생활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너희를 기록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의 안식일을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지냈으므로 구약시대에 조상들이 지키던 방식대로 지키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니,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고, 전적으로 그 위에 우리들을 세워야 한다.<sup>7)</sup>

도리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더 이상 미신적인 의미의 안식일 성수는 위험하며,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날에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도들은 안식일이 오래 전부터 지켜져 왔으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신적으로 지켜져 왔으므로 이를 대신해서

새로운 날로 대체시켰다. 이제 주의 날이 새로이 선택되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어서 율법의 그림자들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날 그 자체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서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 속에서 이미 알게 된 것은 신자들이 그들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한 특정한 날을 항상 지켜왔다는 점이다. 그들이 날마다 모일 수 없다면 기록한 모임을 위하여 한 특정한 날이 지정되어서 보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sup>8)</sup>

교회의 예배와 평화와 질서와 교육과 친교를 위해서 유대인이 지켜온 날은 제쳐두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온 것이다.

#### 4) 안식일의 윤리적 적용

칼빈의 신명기에 대한 설교 34번과 35번에 보면, 안식일의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설교는 1555년 6월 제네바 성 삐에르 대예배당에서 선포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제4 계명의 명령들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비록 안식일의 예전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되는 내적인 의미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안식일의 휴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자신을 성별하도록 가르치려는 데 초점이 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룩함과 구별을 본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 구별됨의 상징과 표시가 있어야만 했었다. 그들에게서 안식일은 은혜의 보장이었으니, 우리들의 생각과 관

7) John Calvin, *Sermons on Galatians* (Audubon: Old Paths Publication, 1995), p. 558.

8) Calvin Comm. on I Cor. 16:2.

심들을 죽이도록 붙잡아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종일 죄악된 행위를 그치고 씌으로써 옛 사람을 죽이고,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다.

## 2. 청교도의 주일 성수 이해

주일 성수 개념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종종 논쟁이 있어 왔다.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으며, 아직 까지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대명사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3-9)에 담긴 명백한 차이점이다.

###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국교회에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칼빈이 극찬해 마지 않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다. 이 고백서는 독일의 남부 하이델베르크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확고히 가르치려는 신성로마제국의 선후(選侯) 중 한 사람인 프레데릭 3세의 요청으로, 당시 20대의 젊은 수재들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와 캐스퍼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가 기초하여 기독교신앙을 요리문답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3 문에서, “하나님은 제4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다.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

는 것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것과 특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나쁜 것을 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도록 요구하신다.

위의 요리문답이 작성된 지 약 팔십오 년 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정치지도자들 151명은 종교개혁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일 원리를 제시하여 당시 세속정권의 지침으로 제정하였다. 매우 긴 설명을 제4 계명에 첨가하였다. 이는 매우 엄격한 지침으로 준수되었고, 청교도들의 독특한 주일 성수 스타일을 엿보게 한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자.

자연의 법칙에 있듯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떼어 놓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 날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었다. 이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불리며, 이는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대해서 기록되어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뒤에,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뒤에, 하루 종일 자신들의 일

이나, 세상적인 직업이나 오락에 대한 생각들과 말들로부터 구별되어 기록한 휴식을 준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필수적인 의무 이행과 자선에만 사용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앞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매우 강력하고도 엄격한 주일 성수가 조항이 담겨 있다. 그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조되는 주일 성수의 엄격한 적용이 청교도들의 신앙 생활과 교회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주일 성수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뚜렷한 형태의 주일성수하는 행동 양식을 보여 주었다. 주일 성수의 엄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이 날 청교도들은 안식의 의미와 성격을 독특한 윤리적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첫째로, 이 날은 휴식을 명령받은 날이었다. 이것은 문자적이 고도, 육체적인 휴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칼빈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맛을 보는 구속적인 휴식의 의미는 보다 덜 강조되었다. 모든 일상적인 일과 놀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날의 휴식은 또한 다른 날의 휴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 날의 휴식은 가장 적합하고도 합당한 휴식이다. 왜냐하면 이 날의 휴식은 그 질적인 면에서 계속되는 휴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날 쉬는 것이란 잠시 어떤 것의 일시 중단이지만, 주일의 휴식은 참된 휴식이기 때문에 매주 지속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 날의 휴식은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방편이요, 수단이라고 보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였으니, 이는 일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었음에 유의하여, 불가피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모이라고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서 종을 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계가 많지 않았던 이 시대에라도, 아무 종이나 무분별하게 치는 것은 금지하였다.

둘째로, 이 날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맘을 흘리라고 강조하였다. 잉글랜드 지방의 농경사회가 점차 15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달라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으니, 산업 경제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는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였다.<sup>9)</sup>

농부들은 썩뿌릴 때이나 추수 때에라도 들이나 농원이나 밭에 나가서 파종이나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휴식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주인된 사람이 일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심지어 마을에 머무는 방문객들도 장사를 하거나 좌 판대를 벌려놓지 못하게 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휴식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종들이나 하인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변호사나 의뢰인이나, 심지어 의사들도 연구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되어서 감옥행이었다.

동물들도 휴식하도록 하였다. 사람을 섬기는 이것들도 맨 처음 지어진 목적처럼 보다 나은 사용을 위해서 휴식을 필요로 하였다. 동시에 주인된 사람들도 쉬어야 함을 상기하게 되었다.

합법적인 오락이나 레크리에이션도 금지되었다. 휴식에 따르는 의무는 예배이다. 주일의 휴식은 예배를 위한 휴식이기 때문이다. 오락은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금지해야

9) Christopher Hill, *Society and Puritanism in Pre-Revolutionary England* (London: Secker and Warburg, 1964), pp. 152-3.



할 목록에는 사격, 사냥, 낚시, 테니스, 펜싱, 볼링, 배를 날려서 하는 사냥 등이 들어 있다. 그 당시에 매우 유행하던 닭싸움과 곰놀리기, 개를 부추겨서 황소를 물어 죽이는 놀이 등도 금지하였다. 손과 발,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하는 것도 금지 조항에 들어 있다. 따라서 펜을 들어서 생각하거나 글씨를 쓰는 것도 금지하였다. 오직 하늘 나라의 명상만이 유일하게 시행할 행동이라고 보았다.

## 2) 청교도의 주일 활동

1606년의 청교도 설교자들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적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루를 원하신다. 주일 24시간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과 하루 종일, 심지어 밤에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졌 것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 이후에도 합당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설교하였다.

개인적인 예배 혹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주일날 공적인 예배 이외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예배 직전에는 한 주간의 죄를 반성하면서, 지나간 주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보냈다. 어떤 죄를 범하였던가, 어떤 축복을 받았던가, 어떤 은혜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였다.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 이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설교자의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였고, 예배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설교 본문을 묵상하였다.

따라서 성경 읽기에는 개인적인 묵상이 뒤따랐다. 설교에서 주

어진 명령들을 묵상하였고,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들을 묵상하였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요, 많이 읽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또한 가장 많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명상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과의 주일 설교들에 대한 대화와 나눔이 또한 필수적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들었는가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져다 주었고, 기억 속에 말씀과 설교를 보다 분명히 남겨 놓았다. 위와 같은 영적인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일주일의 다른 날들로 감사가 연속적이 되게 하였다.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는 일도 주일에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 시편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불렀다. 시편 찬송은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인간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했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기쁨의 날이었다.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에 적합한 날이었다.

동시에 주일에 자선 행위를 강조하였다. 이는 강력한 사회 봉사 활동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잘 준비되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주일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공적으로는 사회에서 선행을 격려하고, 선행을 교육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성결하게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신성모독자들, 예를 들면 반항적인 자녀들을 바로잡고, 불순종적인 종들과 불신앙적인 아내들을 거룩하게 교화하는 날이었다.

## 결론

우리는 칼빈과 청교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칼빈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마치시

고 쉬신 것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포괄적인 예로 삼으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은 안식일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예표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그들이 강조했던 제사적인, 상징적인 중요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안식일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창조의 질서에 따라 명령된 날로 보았고, 이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도덕적이며, 보편적인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청교도들은 특히 주일 이외에는 어떤 날도 성별된 날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칼빈에 비해서 보다 엄격히 주일을 성수하여,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하였고, 주일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고수하였다. 물론 유대인들이 행한 맹목적인 안식일 준수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주일 행동 규범이 제시되었다.

칼빈에게는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주일 성수가 강조되었고, 여기에는 보다 많은 자유와 영적인 유연성(freedom and flexibility)이 있었다.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주일은 영적인, 구원적인 안식이 있는 날이라고 보았고, 이는 안식일을 죄악된 일로부터 따로 구별시킴으로써,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점들이 신학적으로 청교도들에게서는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이나 청교도들이나, 이 날을 일상적인 사업과 노동에서 구별시켜 오락과 유희를 금지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일치하였다. 칼빈이나 청교도들 모두 예배는 하루를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개인적인 형태든지 공적인 예배의 모임이든지 예배가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주일에 자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서두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칼빈의 생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청교도들의 생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칼빈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칼빈이 신명기 설교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이 설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주일에 담겨진 위로와 휴식의 의미, 다시 말하면 참된 영적인, 구속적인 휴식으로서의 주일에 대한 신학이 청교도들에게는 다소 부족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좋은 질서와 건덕(建德)이라는 실제적인 유익의 측면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였다. 청교도들은 좀더 제4 계명을 엄격히 주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휴식과 예배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주일 개념은 청교도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원리적이다. 여기서 빚어지는 주일 성수의 유연성과 엄격성 사이의 긴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개혁주의 전통 속에 지난 사백 년 동안 위와 같은 신학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일을 지켜 안식할 때에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에야만, 제4 계명의 영적인, 구속적인 결론에서 도출된 보다 중요한 윤리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